

2023학년도 6월 모의고사 해설지

-기출의 파급효과 국어팀

제작 : 박영호

〈보기〉

음모 **모티프**는 인물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음모를 실행하는 이야기 단위이다. 음모의 진행 과정에 **환상적 요소**가 사용되기도 하고 **조력자**가 등장해 음모자를 돕기도 한다. 음모가 실행되면서 서사적 긴장이 고조되는데, 음모자의 욕망 실현이 지연되면 서사적 긴장은 일시적으로 이완된다. 이때 음모자가 또 다른 음모를 꾸미나 결국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며 **죄상에 따라 처벌된다**.

음모와 관련된 사건이 등장하겠군요. 음모를 꾸미고 그것이 들켜 '처벌' 받는다는 걸 보니 아마 음모를 꾸미는 인물이 곧 악인이겠습시다. 고전소설에서는 주동 인물 VS 반동 인물의 외적 갈등이 자주 등장하고 주로 주동 인물이 선인, 반동 인물이 악인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미리 인물 관계를 짐작하고 넘어갑시다.

상서의 셋째 부인 **여씨**는 둘째 부인 **석씨**의 행실과 마음 씀이 매사 뛰어남을 보고 **마음속에 불평하여** 생각하되, '이 사람이 있으면 내게 상서의 총애가 오지 않으리라.' 하여 **좋은 마음이 없더라**. 날이 늦어져 모임이 흩어진 후 상서의 서모(庶母) 석파가 청운당에 오니 여씨가 말하길.

"**석 부인은 실로 적강선녀라**. 상공의 총애가 가법지 않으리로다."

석파가 취해 실언함을 깨닫지 못하고 왈,

"**석 부인은 비단 얼굴뿐 아니라 덕행을 겸비하여** 시모이신 양 부인이 더욱 사랑하시나이다."

이때 석씨가 석파를 청하자 석파가 백벽당에 이르러 웃고 왈,

"**나를 불러 무엇 하려 하느냐? 내 석 부인이 받는 총애를 여 부인에게 자랑하였나이다.**"

석씨가 내키지 않아 하며 당부하되,

"**① 후일은 그런 말을 마소서.**"

하니, 석파 웃더라.

인물이 여러 명 나오지만, <보기>를 읽고 떠올린 생각을 바탕으로 잘 정리해야 합니다. '석씨'가 행실이 좋은 것을 보니 선인, '석씨'를 질투하는 '여씨'는 악인일 확률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석파'의 발화를 통해서도 '석씨'가 착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얼굴도 이쁘고 덕행도 겸비했다며, 시어머니인 양 부인도 좋아한다고 그러죠. (여씨의 속도 모르고 말

이죠). 그리고 석파는 이렇게 석씨 칭찬을 했음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석씨는 이를 내켜 하지 않아요. 아마 여씨가 자신을 질투할까봐 그런 것이겠죠? 현명한 모습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점들을 바탕으로 '여씨'의 음모를 바탕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 장면·사건 요약

- ① 여씨(악인)가 석씨(선인)를 질투함.
- ② 여씨가 석씨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석파에게 털어놓음.
- ③ 석파는 여씨에게 석씨를 칭찬함.
- ④ 석파는 석씨에게, 석씨 본인을 칭찬했음을 얘기함
- ⑤ 이를 들은 석씨는 석파에게 경고함

✓ 필수적 감상 태도

- ① 인물의 성격 파악하기
- ② 인물 간 관계 파악하기
- ③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 예측하기

여씨의 거동이 점점 아름답지 않으나 양 부인과 상서는 내색하지 않더라. 일일은 상서가 문안 후 청운당에 가니 여씨 없고, **녹운당에 이르니** 희미한 달빛 아래 **여씨가 난간에 엎드려 화씨의 방을 엿듣는지라**, 도로 청운당에 와 시녀로 하여금 청하니 여씨가 급히 돌아오니 **상서가 정색하고 문 왈**,

"부인은 깊은 밤에 어디 갔더뇨?"

여씨 답 왈,

"**① 문안 후 소 부인의 운취각에 갔더이다.**"

상서는 본래 사람을 **지극한 도로 가르치는지라 책망하며 왈**,

"부인이 여자의 행실을 전혀 모르는지라. 무릇 여자의 행세 하나하나 몹시 어려운지라. 어찌 깊은 밤에 분주히 다니리오? **더욱이 다른 부인의 방을 엿들음은 금수의 행동이라** 전일 말한 사람이 있어도 전혀 믿지 않았더니 내 눈에 세 번 뵈니 비로소 그 말이 사실임을 알지라. **부인은 다시 이 행동을 말고 과실을 고쳐 나와 함께 늙어갈 일을 생각할지이다.**"

하며 기세가 엄숙하니, **여씨가 크게 부끄러워하더라**.

‘여씨’와 관련된 또 다른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씨가 ‘녹운당’이라는 곳에서 ‘화씨’의 방을 엿듣다가 ‘상서’에게 걸립니다. 그래서 상서에게 혼나는 장면입니다. ‘여씨’의 행실이 별로라는 걸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씨’는 ‘석씨’의 행실이 좋아서 상서의 사랑을 받을까 걱정합니다. 그런데 되려 자기는 화씨의 방을 엿듣다 ‘금수의 행동’이라며 상서에게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종의 갈등 상황입니다. 사건과 전반적인 작품의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 장면·사건 요약

① 여씨가 화씨의 방을 엿듣다 상서에게 걸려서 혼남 (갈등 상황)

✓ 필수적 감상 태도

① 작품 내 갈등 이해하기
② 전반적인 상황 이해하기

이후 여씨 밤낮으로 생각하더니, 문득 옛날 강충이란 자가 저주로써 한 무제와 여 태자를 이간했던 일을 떠올리고, **저주의 말을 꾸며** 취성전을 범하니 일이 치밀한지라 뉘 능히 알리오?

일일은 **취성전**에서 양 부인이 일찍 일어나 앉았으나 석씨가 마침 병이 나서 문안에 불참하매 **시녀 계성**에게 청소시키니, 계성이 짐짓 침상 아래를 쓸다가 갑자기 봉한 것을 얻어 내며,

“알지 못하겠도다. 누가 잃은 것인가? 필연 동료 중 잃은 것이니 임자를 찾아 주리라.”

하고 **스스로 혼잣말** 하거늘 부인이 수상히 여겨 가져오라 하여 풀어 보니, 그 글에 **품은 한이 흉악하여** 차마 보지 못할 바이러라. 필적이 산뜻하니 **완전히 석씨의 것이라** 크게 괴히 여겨 다시 보니 그 언사의 흉함이 차마 바로 보지 못할지라. **양 부인**이 불을 가져다가 사르고 시녀들을 당부하여 왈,

“너희들이 이 일을 누설한즉 죽을죄를 당하리라.”

좌우 시녀 듣고 송구하여 입을 봉하되, 홀로 계성은 누설치 못함을 조급해하고 **양 부인**은 이후 석씨와 자녀를 보나 내색하지 않더라.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본격적으로 ‘여씨’의 음모가 드러나고 있어요. 여씨는 ‘저주의 말’을 꾸며 내어 ‘석씨’를 모함하고자 합니다. 여씨의 시녀가 ‘갑자기’ 봉한 것을 얻어내고 혼

잦 말을 해요. 의심스럽죠. 그래서 양 부인이 그것을 봤는데, 필적이 석씨의 것이네요. 하지만 석씨는 어떤 인물이었나요? 네, 품행이 바른 선인이었어요. 아주 당연하게도 이 상황 자체가 ‘여씨’의 음모라는 걸 캐치하셔야 합니다.

양 부인은 석씨를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석파의 발화를 통해서 눈치챘죠? 그래서인지 석씨를 바로 의심하지 않고 아무 일 없는 척합니다. 여기서 석씨를 바로 추궁하지 않고 모른 척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석씨가 평소 행실이 바르기 때문에 바로 의심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는 게 자연스럽죠?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 장면·사건 요약

① 여씨가 석씨를 모함하고자 함
② 계성(여씨의 하인)이 ‘봉한 것’을 가지고 수상하게 혼잣말을 함
③ 양 부인이 이를 눈치채고 ‘봉한 것’을 풀어봄
④ 거기에는 석씨의 필적으로 흉악한 말이 적혀있음 (여씨의 간계) ★
⑤ 하지만 양부인은 석씨를 바로 의심하지 않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냄(석씨의 평소 행실을 감안했을 것)

✓ 필수적 감상 태도

① <보기>와 직결되는 사건(음모 모티프) 이해하기

[중략 부분의 줄거리] 석씨가 쫓겨난 후, 첫째 부인 화씨를 모함하려고 **여씨가 여의개옹단을 먹고 화씨로 둔갑**해 나타나자, **상서**는 친누나 소씨, 의남매 윤씨, 석파를 불러 모아 함께 실상을 밝히려 여씨의 심복을 찾는다.

결국 석씨는 쫓겨났군요. 거기에 ‘여씨’가 갑자기 둔갑술을 사용합니다. 석씨로는 모자라 ‘화씨’에게도 무언가를 하려고 하나 봅니다. 하지만 이때 ‘상서’가 수상함을 느꼈는지 실상을 밝히고자 하네요. 그렇게 ‘여씨의 심복’을 찾는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시녀가 **여씨 심복 미양**을 가리켜 아뢰니, 상서가 미양을 잡아내어 엄하게 조사하더라. 미양이 혼비백산하여 사실대로 고하고 두 가지 약을 내어 드리니, 소씨 등이 다투어 보고 웃되, 상서는 홀로 눈을 들어 보지 않으니 사악한 빛을 보지 않으려 함이라. 석파가 그중 **회면단**을 물에 풀어 **두 화씨에게 나누어 주니 진짜 화씨** 노기 가득하여 먹고 왈.

“약을 먹더라도 부모님 남긴 몸이 달리 되라? 네 군이 내 얼굴이 되고자 하니, 이 무슨 괴이한 생각으로 쾌약을 떨려 하느냐?”

상서 왈,

“어지럽게 굴지 말라.”

진짜 화씨는 회면단을 마시되 용모 변치 않더라. 상서가 또 여씨에게 권하니, 여씨 먹지 않거늘 윤씨 웃고 왈,

“아니 먹는 죄 의심되도다.”

소씨 나아가 우김질로 들이붙더라. 여씨가 마지못하여 먹으니 **화씨 변하여 여씨 되는지라**. 좌우 사람들이 박장대소하더라. 상서 바야흐로 단정히 고쳐 앉으며 왈,

“군자 있는 곳에는 요사스러운 일이 없거늘 이 아우가 어질지 못하여 집안에 이런 변이 있으니 대장부 되어 아녀자를 거느리지 못하여 이런 행동거지 있으니 어찌 부끄럽지 않으리오 석씨를 포함함도 여씨의 일이니 누님은 따져 물으소서.”

석파가 먼저 나서며 미양을 붙들고 물으니 미양이 당초부터 여씨가 계교를 꾸뻤던 일들을 낱낱이 말하더라. 소씨, 윤씨 두 사람이 웃으며 왈,

“이제 보건대, 당초 우리 의심이 그르지 않았도다.”

석파가 몹시 좋아해 뛰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여씨는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움직이지 못하고, 화씨는 꾸짖기를 마지않더라. 날이 새어 취성전에 들어가 어젯밤 일을 일일이 아뢰더라. 양 부인이 놀라고 여씨를 불러 마루 아래에 꿇리고 벌주니 가장 엄숙하여 언어 명백하며 들음에 모골이 송연하더라. 이에 여씨를 내치고 계성과 미양 등을 엄히 다스리고 집안을 평정하더라.

- 작자 미상, 「소현성록」 -

역시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씨’의 음모가 들통나는 장면입니다.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장면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씨’가 여의개용단을 먹고, ‘화씨’로 변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진짜를 가리고자 다른 알약을 먹이는데, 이때 ‘여씨’의 정체가 들통납니다. 동시에 음모도 다 밝혀지죠. 석씨를 포함한 것까지 포함해서요.

그렇게 여씨와 그 심복들이 처벌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회면단을 주는 대목입니다. 거기서 ‘두 화씨’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뒤에 가서는 자연스럽게 ‘여씨 먹지 않거늘’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즉, 여기서 말하는 ‘두 화씨’는 화씨로 변장한 여씨와 진짜 화씨를 가리킵니다. 이 대목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줄거리 부분을 잘 읽고, 그것을 이 사건과 엮어서 읽어야 합니다. 이런 사소한 포인트들에 발이 걸리면 시간이 지체되고 작품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장면·사건 요약

- ① 여씨가 약을 먹고 화씨로 변함
- ② 미양(여씨의 심복)을 조사해 여씨의 음모가 드러나기 시작함
- ③ ‘회면단’을 통해 둔갑한 여씨의 정체가 들통남
- ④ 석씨에 대한 음모와 더불어 여씨의 계략이 들통나고 처벌받음

✓ 필수적 감상 태도

- ① <보기>와 직결되는 사건(음모 모티프) 이해하기
- ② 줄거리 장면과 함께 사건의 흐름을 유기적으로 이해하기

#지문 총평

인물 관계를 잡는 것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기>를 잘 참고해야 했어요. 그리고 줄거리 부분과 그 이후 장면을 연결하면서 사건의 흐름을 잘 캐치해야 작품을 수월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연결하면서 읽는 것은 소설 감상의 기본이니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덧붙여 이 지문은 '소현성록'이라는 제목을 가졌지만 '소현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소씨'가 '친누나'라고 언급되는 부분을 토대로 '상서'가 아마 '소현성'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는 있지만 이 또한 정확하지 않고 작품을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고전소설 제목에 인물의 이름이 들어간다면 보통 그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니, 작품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인물 간 관계를 정리하는 연습을 해두는 게 좋겠죠?

1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④

①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 인물의 성격 변화를 암시하지 않습니다. 여씨도 처음부터 석씨를 질투하고 음모를 꾸미는 악인으로 등장하고, 나머지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씨가 흑화하거나 여씨가 개과천선하는 등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배경 묘사를 통해 성격 변화를 암시하는 대목은 더욱더 드러나지 않고요.

② 독백을 반복하여 내적 갈등의 해결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독백은 드러나지만 이와 관련된 내적 갈등 해결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계성의 독백이 드러나지만 내적 갈등의 해결과는 무관해요. 애초에 여씨와 나머지 인물들 간의 외적 갈등이 이야기의 핵심이었죠?

③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일단 시간 순으로 사건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과거를 나타내는 대목 자체가 마땅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④ 한 인물과 다른 인물들 간의 다면적 갈등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 정답입니다. 여씨와 나머지 인물들 간의 갈등 관계를 제시합니다. 여씨와 상서의 갈등, 여씨와 화씨의 갈등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장면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여씨와 석씨 간의 갈등도 있어요.

⑤ 두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병렬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하나의 시간대에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을 중점적으로 제시합니다.

19.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③

① 석파는 집안사람들과 교류하며 집안일에 관여한다.

→ 네, 줄거리와 그 이후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서가 집안 문제의 실상을 밝힐 때 석파도 함께합니다. 그리고 줄거리 이후의 장면에서 석파가 미양을 붙들고 직접 실상을 묻기도 하네요. 집안 사람들과 교류하며 집안일에 관여함을 알 수 있습니다.

② 상서는 남의 말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여 판단한다.

→ 여씨가 화씨의 방을 엿보다 들켰을 때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일 말한 사람이 있어도 전혀 믿지 않았더니 내 눈에 세 번 뵈니 비로소그 말이 사실임을 알지라'라는 대사를 통해 남의 말을 바로 믿지 않고 그 진위를 직접 보고 판단함을 알 수 있어요.

③ 여씨는 상서의 책망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 여씨가 몰래 화씨의 방을 엿보다 걸린 장면에 대해 물어봅니다. 상서가 여씨에게 화를 낼 때 그것을 듣고 여씨도 부끄러워하긴 합니다.

④ 양 부인은 권위를 지니고 가족과 시녀들을 통솔한다.

→ 양 부인이 석씨를 모함하는 것을 보고 시녀들의 입단속을 하는 장면과 여씨를 처벌하는 장면에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⑤ 소씨는 여씨를 압박하여 의혹을 해소하려 한다.

→ 네, 여씨가 회면단을 먹지 않자 자기가 직접 우김질로 회면단을 먹이는 장면을 통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20. 맥락을 고려하여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④

“㉠ 후일은 그런 말을 마소서.”
“㉡ 문안 후 소 부인의 운취각에 갔더니이다.”

- ㉠은 석파의 발화가 내키지 않아서 석파에게 나름의 경고를 표현하는 말이고 ㉡은 상서에게 화씨의 방을 엿듣고 들통나서 하는 변명입니다. 이것만 파악하면 바로 답이 ④번임을 알 수 있어요. ㉠도 석씨가 걱정이 되어 내키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말 하지말라고 걱정하듯 얘기하는 겁니다.

정답 선지 확인하기

④ ㉠은 석파의 경솔함을 염려하는 말이고, ㉡은 상서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한 말이다.

오답 선지 확인하기

- ① ㉠은 석파의 독선을 질책하는 말이고, ㉡은 상서의 오해를 증폭시키는 말이다.
- ② ㉠은 석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말이고, ㉡은 상서를 위협에 빠뜨리기 위한 말이다.
- ③ ㉠은 석파에 대한 호의를 표현하는 말이고, ㉡은 상서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는 말이다.
- ⑤ ㉠은 석파에게 얻은 정보를 불신하는 말이고, ㉡은 상서가 가진 정보를 몰라서 하는 말이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 ⑤

— <보 기> —
음모 모티프는 인물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음모를 실행하는 이야기 단위이다. 음모의 진행 과정에 **환상적 요소**가 사용되기도 하고 **조력자**가 등장해 음모자를 돕기도 한다. 음모가 실행되면서 서사적 긴장이 고조되는데, 음모자의 욕망 실현이 지연되면 서사적 긴장은 일시적으로 이완된다. 이때 음모자가 **또 다른 음모**를 꾸미나 결국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며 죄상에 따라 처벌된다.

① 여씨가 자신을 석씨와 견주오 양 부인과 석씨를 ‘이간’하려는 데서, 석씨와의 경쟁 관계를 의식한 여씨의 욕망에서 음모가 비롯됨을 알 수 있군.

→ 네, 여씨는 행실이 좋은 석씨와 자신을 비교하며 불평합니다. 그리고는 석씨를 모함하고자 하죠. 이것은 ‘봉한 것’을 상서가 보는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씨의 음모가 드러난다고 파악했죠?

② 여씨가 꾸민 ‘봉한 것’이 계성을 통해 양 부인에게 건네진 데서, 상하 관계에 있는 음모자와 조력자에 의해 서사적 긴장이 고조됨을 알 수 있군.

→ 네, 계성은 여씨의 하인이었습니다. 동시에 여씨의 음모를 도와주는 조력자로 등장합니다. 조력자의 도움과 함께 음모가 실행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네요!

③ ‘그 글’이 불살라지고 시녀들의 누설이 금지된 데서, 양 부인에 의해 음모의 실행이 저지되어 서사적 긴장이 일시적으로 이완됨을 알 수 있군.

→ 너무나 당연한 선지입니다. 석씨를 모함하기 위한 글이 불타며 양 부인이 입단속을 하는 것은 음모의 실현을 지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 ‘회면단’을 먹고 여씨가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데서, 음모자가 욕망의 실현을 위해 준비한 환상적 요소가 음모의 실체를 드러내는 도구로 작용함을 알 수 있군.

→ 네, ‘환상적 요소’는 회면단과 여의개용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면단(환상적 요소)으로 인해 화씨로 둔갑한 여씨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⑤ 상서는 '금수의 행동'을 한 여씨를 교화하려 했지만 양 부인은 '어젯밤 일'로 여씨를 내친데서, 처벌 방법을 두고 대립이 있음을 알 수 있군.

→ 상서와 양 부인 사이에서 갈등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상서는 화씨의 방을 엿듣는 '여씨'를 책망함과 동시에 교화하고자 합니다. '과실을 고쳐 나와 함께 늙어갈 일을 생각할지어다'라는 대목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 부인'이 '어젯밤 일'로 여씨를 내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이는 서로 다른 사건에 대한 처벌 방법입니다. '어젯밤 일'은 여씨가 석씨를 모함한 사실이 들통나고 화씨로 둔갑했던 사실이 들통난 그 사건입니다. 즉, 여씨의 음모가 드러나는 장면이죠. 이때는 상서 또한 책임을 물으라고 합니다. '석씨를 모함함도 여씨의 일이니 누님은 따져 물으소서'라는 대목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벌 방법에 대한 두 인물의 대립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두 내용을 엮어 오답을 구성합니다. 속지 않게 주의하셔야 해요.

〈보기〉

시조, 가사, 수필에서 작가는 대개 1인칭으로 나타나므로 작가 정보를 활용하면 작품을 더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작가는 자신을 다른 인물로 상정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도 작가를 그 인물에 투영해서 읽을 수 있다. (가)는 작가가 나이 들어 벼슬에서 물러나 전원에서 생활하며 지은 시조라는 점, (나)는 작가가 임금에게 충언하는 시를 쓴 죄로 옥에 갇혔을 때 지은 가사라는 점, (다)는 작가가 시골에서 성장한 경험을 반영하여 쓴 수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

작품의 정보에 대해 알려줍니다. (가)는 나이가 들고 나서 자연을 즐기는 작품, (나)는 유배 가사로, 왕에 대한 충정과 그리움을 표현한 작품, (다)는 시골 생활과 관련된 깨달음이 주된 내용이겠군요. 그리고 특정 대상이 화자처럼 느껴진다면, 그 대상도 눈여겨봅시다.

(가)

강호에 봄이 드니 이 몸이 일이 많다
나는 그물 잡고 아이는 밭을 가니
뒷 피에 얽기는 약을 언제 캐려 하나니

〈제1수〉

삿갓에 도롱이 입고 세우(細雨) 중에 호미 메고
산전을 흘매다가 녹음에 누웠으니
목동이 우양을 몰아다가 잠든 나를 깨와다

〈제2수〉

→ 자연을 즐기는 전형적인 시가입니다.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수의 종장, 제2수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또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드러납니다. 같이 체크합니다. ‘녹음’도 주로 여름을 상징하는 시어이니 같이 체크하고 알아둡시다.

대추 불 붉은 골에 밤은 어이 떨어지며
벼 벤 그루에 게는 어이 내리는고
술 익자 체 장수 돌아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제3수〉

→ 이번에도 자연을 즐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종장에서, 술을 ‘아니 먹고 어이리’라는 표현을 통해 술을 마시며 자연을 즐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네요. 여기서도 ‘벼 벤 그루’나 대추가 붉게 익었다는 상황을 통해 계절이 가을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피에는 새 다 꽃고 들에는 갈 이 없다
외로운 배에 삿갓 쓴 저 늙은이
뉘대에 맛이 깊도다 눈 깊은 줄 아는가

→ 산에 새도 그치고 들에도 갈 사람이 없습니다. 인적이 끊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로운 배’인가 봅니다. 또, 여기서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이 등장합니다. ‘저 늙은이’의 모습에 주목하는데, 배에서 낚시를 하나봐요. 그리고 그 늙은이의 모습에 공감하는 화자의 태도가 종장에서 드러납니다. 뉘대에 맛이 깊도다, ‘눈 깊은 줄 아는가’라는 표현은 아마 저 늙은이에게 하는 말이겠죠? 늙은이가 눈이 깊은 줄 아는 듯 하다는 표현입니다.

→ 그럼 <보기>에 따라 ‘저 늙은이’라는 표현은 자연을 즐기는 자신을 다른 인물로 상정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눈’이라는 시어를 통해 계절이 겨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4수〉

- 황희, 「사시가」 -

✓ 필수적 감상 태도

- ① 계절의 변화 체크하기
- ② <보기> 내용 연결하며 작품 읽기(화자를 객관화하는 대상)
- ③ 화자의 태도 체크하기(자연을 즐김)

#지문 총평

계절에 따라 각 수가 전개되고, 그에 따라 화자의 삶이나 흥취를 담은 작품입니다. 자연에서 즐기는 화자의 모습만 잘 체크했다면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늙은이’와 같이 화자 자신을 다른 대상에 빗대는 경우가 종종 등장합니다. 비슷한 예시로는 22.06 유객이 있습니다. 해당 작품에서도 화자를 ‘청평사의 나그네’라고 객관화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기〉

선생님 : 이 작품의 제목에 쓰인 ‘자도(自悼)’는 ‘자신을 애도한다’는 뜻으로, 죽음에 견줄 만큼의 극단적인 슬픔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점에 주목하여 작품을 읽어 봅시다

사실상 작품 주제를 알려주는 <보기>입니다. 27번 <보기>를 통해 (나)가 유배 당한 상황에 대해 노래하는 작품일 거라고 예상했어요. 여기서 그 주제를 더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제목도 자도사인데, ‘자도’가 극단적인 슬픔이라고 해요. 그럼 (나)의 화자는, 유배된 상황에서 아주 극단적인 슬픔을 드러내겠군요. 사실상 작품 다 읽었습니다.

(나)

건곤이 얼어붙어 삭풍이 몹시 부니
하루 켜다 한들 열흘 추위 어찌할꼬
은침을 빼내어 오색실 꿰어 놓고
임의 터진 옷을 깎고자 하건마는
천문구중(天門九重)에 갈 길이 아득하니
아녀자 깊은 정을 임이 언제 살피실꼬
음력 선달 거의로다 새봄이면 늦으리라

→ 첫 행부터 겨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자는 추운 겨울에, 임을 생각하며 ‘임의 터진 옷을 깎고자’ 합니다. 하지만, 임은 그런 화자(아녀자)를 봐주지 않습니다. ‘아녀자 깊은 정’을 언제 살피냐는 구절을 통해 이를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아녀자’는 화자를 빗댄 다른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군요. 유배 가사에서 여성 화자를 내세워, 임(왕)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는 상황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읽어주셔야 합니다. 임에 대한 사랑이 곧 임금에 대한 충정이고, 여기서 나온 아녀자는 화자일 겁니다.

동짓날 자정이 지난밤에 돌아오니
만호천문(萬戶千門)이 차례로 연다 하되
자물쇠를 굳게 잠가 동방(洞房)을 닫았으니
눈 위에 서리는 얼마나 녹았으며
뜰 가의 매화는 몇 송이 피었는고
간장이 다 썩어 닳조차 그쳤으니
천 줄기 원루(怨淚)는 피 되어 솟아나고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빛조차 어두워라

→ 화자가 처한 부정적인 상황과 슬픔이 드러납니다. ‘간장이 다 썩어 닳조차 그쳤으니’라는 표현은, 그만큼 화자의 슬픔이 강하다는 뜻이죠? 또 천 줄기 원루가 피가 되어 솟아나고, ‘반벽청등’은 빛조차 어둡다고 합니다. 등의 빛이 어둡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정적이라는 거죠. 굳이 빛이 어둡다는 상황에 주목하지 않아도, 화자의 상황이 안 좋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임과 떨어진 상태이니깐요! <보기>를 참고해서 유배당한 상황이라는 것을 떠올려도 좋겠습니다.

→ 여기서 ‘원루’는 ‘원통하여 흘리는 눈물’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피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배 간 게 억울하고 슬프다는 뜻입니다. 원루의 정확한 의미를 몰라도 원/루이니까, 원한이 깊다는 정도로만 파악하셔도 좋습니다.

황금이 많으면 매부(買賦)나 하련마는
백일(白日)이 무정하니 뒤집힌 동이에 비칠쏘냐
평생에 쌓은 죄는 다 나의 탓이로되
언어에 공교 없고 눈치 몰라 다닌 일을
풀어서 헤여 보고 다시금 생각거든
조물주의 처분을 누구에게 물으리오
사창 매화 달에 가는 한숨 다시 짓고
은쟁(銀箏)을 꺼내어 원곡(怨曲)을 슬피 타니
주현(朱絃) 끊어져 다시 잇기 어려워라
차라리 죽어서 자규의 냇이 되어
밤마다 이화에 피눈물 울어 내어
오경에 잔월(殘月)을 섞어 임의 잠을 깨우리라

- 조우인, 「자도사」 -

→ 자신의 상황에 대한 한탄이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또 마지막엔 차라리 자규(새)가 되어 피눈물을 울어, 임의 잠을 깨우고자 합니다. 그렇게라도 임에게 닿겠다는 화자의 간절함이 드러나는데, ‘피눈물 울어 내어’라는 구절이 특이합니다. 즉, 자신의 억울함이나 슬픔을 드러내겠다는 뜻이죠.

✓ 필수적 감상 태도

- ① 화자의 정서 체크하기
- ② <보기> 내용을 바탕으로 화자가 처한 상황·정서를 깊게 이해하기
- ③ <보기> 내용 연결하며 작품 읽기(화자를 객관화하는 대상)

#지문 총평

<보기>의 내용을 떠올리면서 읽기만 하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작품입니다. ‘간장이 다 썩어 났조차 그쳤으니’, ‘피눈물’과 같은 극단적인 표현들도 등장하기 때문에, 화자의 정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색실로 임의 옷을 만든다거나, 자연물이 되어 임에게 닿고자 하는 등의 표현이 사미인곡과 닮아 있습니다. 같이 공부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

그 집은 그 집 아이들에게 작은 우주였다. 그곳에는 많은 비밀이 있었다. 자연 속에는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비밀이 감춰져 있었다. 그는 그 집에서 크면서 자연 속에 감춰진 비밀들을 깨달아 갔다.

석양의 북새, 혹은 낮게 깔리는 굴뚝 연기를 보고 그는 비설 거지를 했다. 그런 다음 날은 틀림없이 비가 올 것이므로. 비가 온 날 저녁에는 또 지렁이가 밤새 운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똑또르 똑또르 하는 지렁이 울음소리. 냄새와 소리와 맛과 색깔과 형태 등이 그 집에서는 선명했다. 모든 것들이 말이다. 왜냐하면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과 아침과 낮과 저녁과 밤이 그 집에서는 뚜렷했으므로. 자연이 그러한 것처럼 사람들의 삶이 명료했다.

→ ‘그 집’에서 큰 ‘그’는 아마 글쓴이일 겁니다. 그리고 ‘그 집’은 글쓴이가 큰 시골 집이겠죠. 시골 집에서는 자연의 비밀을 잘 알았다고 합니다. 글쓴이가 성장해 온 자연 친화적인 삶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집을 떠난 그에게는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 아침과 저녁이 불분명하고 사계절이 불분명하고 오감이 불분명하다. 병원에서 태어나 수십 군데 이사를 다니고 나서 겨우 장만한 아파트. 그 사각진 콘크리트 벽 속에 살고 있는 그의 아이는 여름에 긴팔 옷을 입고 겨울에 반팔 옷을 입는다.

→ 글쓴이의 성장 환경과 대비되는 상황이 제시됩니다. 자연 친화적인 ‘그 집’에서는 자연처럼 사람들의 삶이 명료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에서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게 불분명’합니다. 그(글쓴이)와 달리 ‘그의 아이’는 삶이 불분명한 환경에서 지냅니다. 여름에 긴팔, 겨울에 팔을 입는 것은 비정상적이죠. ‘그

집’과 다르게 자연과 단절된 공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은 은행에서 나고 먹을 것은 슈퍼에서 나는 것으로 아는 아이는, 수박이 어느 계절의 과일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아이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지 못한다. 아침 저녁의 냄새와 소리와 맛과 형태와 색깔이 어떻게 다른지 알지 못한다.

→ 마찬가지로입니다. 자연과 단절된 ‘아파트’에서 자란 ‘그의 아이’는 삶이 불분명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수박이 어느 계절의 과일인지 모르고, 사계절을 모르고, 아침 저녁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어머니의 부음을 듣고 그는 그가 나고 성장한 그 노란 집으로 갔다. 팔 남매를 낳고 기르느라 조그마해질 대로 조그마해진 어머니는 바로 자신의 아이들을 낳았던 그 자리에 자신의 몸을 부러 놓고 있었다.

그 집, 노란 그 집에 탄생과 죽음이 있었다. 그 집 안주인의 죽음 이후 그 집은 적막해졌다. 아무도 그 집에 들어와 살지 않을 것이며 누구도 아이를 그 집에서 낳지 않을 것이며 그러므로 죽음 또한 그 집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집의 역사는 그렇게 끝이 난 것이다.

우리들의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조왕신과 성주신이 살지 않는 우리들의 집은 이제 적막하다. 더 이상의 탄생과 죽음이 없는 우리들의 집은 쓸쓸하다.

우리는 오늘 밤도 쓸쓸한 집으로 돌아들 간다.

- 공선옥, 「그 시절 우리들의 집」 -

→ 어머니의 죽음이 제시됩니다. 어머니가 죽음으로써 그 집은 적막해집니다. 그렇게 ‘그 집’의 역사가 끝난다고 해요. 글쓴이는 이 상황에 대해, ‘쓸쓸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이 성장한 곳,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던 곳에 아무도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집’의 역사가 끝난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필수적 감상 태도

- ① ‘그 집’에 대한 글쓴이의 태도 확인하기
- ② 대비적 상황 체크하기(‘그 집’ VS ‘아파트’)
- ③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글쓴이의 쓸쓸함 이해하기
- ④ <보기> 내용 연결하며 작품 읽기(화자를 객관화하는 대상)

#지문 총평

대비적인 상황과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사건에 대한 글쓴이의 태도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다른 작품들처럼 글쓴이의 태도를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했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⑤

① 어조의 변화를 통해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어조의 변화는 세 작품 모두 확인하기 힘듭니다. 어조는 기본적으로 어미 변화와 화자의 태도 변화를 근거로 판단하는데, 세 작품에서는 두 가지 동시에 일어난 부분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②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 (가)와 (나)는 확실히 세태를 비판하는 작품이 아닙니다. (다)는 명료한 자연과 불분명한 인간의 공간을 대비하므로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태 비판도 나름대로 도출할 수는 있습니다. 글쓴이가 불분명한 삶에 안타까움을 느끼니까요. 아무튼 (가)와 (나)가 아주 확실히 틀렸네요.

③ 대상과의 문답을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화자가 특정 대상과 묻고 답하는 상황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④ 초월적 공간을 설정하여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가)와 (다)에서는 확실히 초월적 공간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에서는 '천문구중(하늘)'을 언급하니 초월적 공간이라 볼만한 여지는 있겠군요.

⑤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계절적 배경이 모두 드러났죠? (가)에서는 사계절 모두 드러났고, (나)에서도 '건곤이 얼어붙어', '새봄'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다)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모두 제시되었을 뿐 아니라 아침, 낮, 저녁, 밤과 같은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23. (가)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②

① <제1수>의 초장, 중장은 풍경 묘사이고, 종장은 이에 대한 감상의 표현이다.

→ 초·중장은 풍경 묘사가 아니라 자기가 할 일을 말하는 구절입니다. 종장도 풍경에 대한 감상이 아니라, 오히려 '일이 많은데 약은 언제 케냐~'하는 뉘앙스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② <제2수>의 초장, 중장은 인물의 행위가 순차적으로 나열된 것이다.

→ 네, 도롱이를 입고, 호미를 멘 다음 산전을 흘매다가, 녹음에 눕습니다. 순차적으로 행위를 나열했네요. 정답입니다.

③ <제2수>의 초장과 중장에 있는 인물의 행위는 <제3수>의 초장에서 그 결과로 나타난다.

→ 각 수는 인과 관계로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제2수는 그냥 화자가 장비 메고 돌아다니나다 녹음에 눕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3수에는 가을이 온 상황을 제시하죠. 대추가 익고 밤이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화자가 녹음에 누운 게 원인이 되어, 대추가 익고 밤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④ <제3수>의 초장의 장면은 중장과 인과적 관계로 연결된다.

→ 초장과 중장 모두 가을이 왔음을 알릴 뿐입니다. 대추가 익고 밤이 떨어지는 것이 원인은 아닙니다.

⑤ <제4수>의 초장의 동적인 분위기는 중장의 정적인 분위기로 전환된다.

→ 초장에서 동적인 분위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4수의 초장은 산에 새도 없고 들에도 사람이 없는 상황을 제시할 뿐입니다. 오히려 정적인 분위기라고 보아야겠죠.

24. <보기>에 따라 (나)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②

- ㉠ 천문구중(天門九重)에 갈 길이 아득하니
- ㉡ 음력 설달 거의로다 새봄이면 늦으리라
- ㉢ 간장이 다 썩어 뉘조차 그쳤으니
- ㉣ 백일(白日)이 무정하니 뒤집힌 동이에 비칠쏘나
- ㉤ 은쟁(銀箏)을 꺼내어 원곡(怨曲)을 슬피 타니

— < 보 기 —

선생님 : 이 작품의 제목에 쓰인 ‘자도(自悼)’는 ‘자신을 애도한다’는 뜻으로, 죽음에 견줄 만큼의 극단적인 슬픔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점에 주목하여 작품을 읽어 봅시다

① ㉠을 통해, 임과 만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비판적 인식이 자신을 애도하게 만든 배경임을 알 수 있어요.

→ ㉠의 ‘갈 길’은 임에게로 갈 길일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이 아득하다고 하니, 임과 만날 가능성이 희박하겠죠. 그럼 비판적 인식으로 이어질 테고, 자신을 애도하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② ㉡을 통해, 새봄을 맞이하여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 ㉡은 물론 작품 전반적으로 슬픔을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은 간단하게 ‘옷을 깎지만 새봄이면 늦을 텐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놓고 틀린 선지입니다.

③ ㉢을 통해, 임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너무나 커서 자신을 애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어요.

→ 네, 간장이 썩고 뉘조차 끊어질 정도로 괴롭다는 뜻입니다. 괴로운 이유는 임과 떨어졌기 때문이죠. 타당한 해석입니다.

④ ㉣을 통해, 무정한 임 때문에 자신의 처지가 바뀔 가능성이 없음을 깨닫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 백일이 정이 없어서(무정하니), 뒤집힌 동이에 그 빛이 비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임이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상황으로 이해한다면 충분히 타당한 해석입니다. 백일은 임, 뒤집힌 동이는 화자로 대응하

면 되겠죠.

⑤ ㉤을 통해, 임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음악으로 표현하여 내면의 슬픔을 토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 화자가 슬퍼하는 이유는 임과 떨어진 상황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은 화자에게 큰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원곡을 타는 것도 임에 대한 원망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겠죠. 시어부터 ‘원곡’이니까 원망을 맞다고 판단해도 좋습니다.

25. (가)와 (나)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①

① (가)의 ‘녹음’은 평온한 분위기의, (나)의 ‘동방’은 암울한 분위기의 장소이다.

→ (가)의 화자는 녹음에 누워 잡니다. 평온한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나)의 동방은 자물쇠를 굳게 잠그고 닫혀있는 공간입니다. 심지어 만호천문은 차례로 여는데 동방만 잠겨있네요. 거기에 임도 없는 공간입니다. 암울한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방’의 전후 맥락을 살펴도 모두 부정적인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으니, 동방 또한 잠겨있다는 포인트와 함께 생각하면 암울한 분위기를 형성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② (가)의 ‘언제’는 미래의 어느 시기를, (나)의 ‘언제’는 과거의 어느 시기를 가리킨다.

→ (가)와 (나)의 ‘언제’ 모두 미래의 어느 시기입니다. (가)의 ‘언제’는 약을 쉰 때로, 아직 다가오지 않은 시점입니다. (나)의 ‘언제’도 임이 아내와의 깊은 정을 살필 때인데, 역시나 아직 다가오지 않은 시점이죠.

③ (가)의 ‘새’와 (나)의 ‘자규’는 모두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물이다.

→ (가)의 ‘새’는 감정 이입의 대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제4수의 공간에 아무도 없음을 나타내는 소재일 뿐입니다. (나)의 ‘자규’는 화자가 되고자 하는 대상이며 화자의 슬픔을 표현하는 대상입니다. ‘자규의 뉘이 되어 ~ 피눈물 울어 내어’라는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정 이입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④ (가)의 '잠든 나'의 '잠'과 (나)의 '임의 잠'은 모두 꿈을 통해서라도 소망을 실현하기 위한 매개이다.

→ (가)의 '잠든 나'는 소망 실현과 무관합니다. 그냥 녹음에 누워서 잠든 게 끝입니다. (나)의 '임의 잠' 또한 꿈을 통해 소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화자는 '자규의 녀'이 되어 '피눈물 울어 내어' 오히려 임의 잠을 '깨우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꿈 자체가 소망 실현의 매개체가 아니에요.

⑤ (가)의 '돌아가니'와 (나)의 '돌아오니'는 모두 화자가 새로운 상황에 기대감을 갖는 계기이다.

→ (나)의 '돌아오니'도 동짓달 자정이 돌아온다는 상황에서 사용된 표현인데 이것이 화자의 기대감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돌아오니'는 뒤에 만호천문이 차례로 열리지만 동방은 닫히는 상황과 연결되고, 나아가 '간장이 다 썩어 낚조차 그치는' 정서의 맥락으로 이어집니다. 기대감과 무관해요.

(가)는 술을 먹게 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볼 수 있습니다.

26. **비밀들**을 중심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①

① '그 집을 떠난 후 그의 오감이 불분명한 것은 비밀들이 그의 아파트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 비밀들이 아파트에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자연의 비밀입니다. 아파트는 오히려 비밀들을 느끼지 못하는, 불분명한 공간입니다. 자연의 비밀을 깨달아 가는 공간은 '그 집'입니다. 아파트와 자연의 대비를 잘 파악했다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선지입니다.

② '그 집 아이들은 '그 집'에서 '낮게 깔리는 굴뚝 연기'에 감춰진 '비'에 관한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었다.'

→ 아주 당연한 선지입니다. 서양의 북새나 낮게 깔리는 굴뚝 연기를 본 다음 날에는 비가 올 것이라는 비밀을 압니다.

③ '그의 아이'가 '여름에 긴팔 옷을 입고 겨울에 반팔 옷을 입는' 것은 비밀들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 네, 자연과 단절되어 그 비밀을 모르는 모습입니다.

④ '그 집'의 역사가 어머니의 죽음 후 끝났다고 한 것은 비밀들과 함께할 사람들의 '탄생과 죽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 이건 지문 그대로입니다. 지문 마지막 부분에서 어머니가 죽고 탄생과 죽음이 없다고 했어요.

⑤ '그 사각진 콘크리트 벽 속에 사는 '그의 아이'는 비밀들을 알아차릴 줄 아는 감각을 익히지 못해 삶이 불분명하다.'

→ 네, 자연의 비밀을 알아차리는 감각을 익히지 못했기 때문에 사계절을 구분하지 못하고 여름엔 긴팔 겨울엔 반팔을 입고 살아갑니다.

27.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 ②

— <보 기> —

시조, 가사, 수필에서 작가는 대개 1인칭으로 나타나므로 작가 정보를 활용하면 작품을 더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작가는 자신을 다른 인물로 상징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도 작가를 그 인물에 투영해서 읽을 수 있다. (가)는 작가가 나이 들어 벼슬에서 물러나 전원에서 생활하며 지은 시조라는 점, (나)는 작가가 임금에게 충언하는 시를 쓴 죄로 옥에 갇혔을 때 지은 가사라는 점, (다)는 작가가 시골에서 성장한 경험을 반영하여 쓴 수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

① (가)의 '저 늙은이'가 작가라면, 전체적으로 이 작품은 연로한 작가가 느끼는 전원생활의 흥취를 드러낸 것이겠군.

→ 너무나 쉽게 판단해야 하는 선지입니다. 작품의 '저 늙은이'는 <보기>를 참고하면 충분히 연로한 작가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늙은이도 낚시를 즐겼으니, 연로한 작가의 전원생활의 흥취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② (가)의 '저 늙은이'가 작가가 아니라면, <제4수>는 '뉘대'의 깊은 맛에 몰입하며 '나'와는 달리 한가롭게 지내는 인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낸 것이겠군.

→ 심리적 거리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작품 해설에도 언급했지만, '나'는 '늙은이'에게 공감하며 '눈 깊은 줄 아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화자 또한 자연을 즐기는 인물인데 이와 대비된다고 보긴 어렵네요.

③ (나)의 '아녀자'가 작가라면, 이 작품은 '은침'과 '오색실'로 '임의 터진 옷'을 깎는 상황을 설정하여 임금에 대한 공은 충심을 표현한 것이겠군.

→ 임을 생각하며 임의 옷을 깎는 것이니, <보기>를 참고하여 '아녀자'를 작가로 간주하면 임금에 대한 충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배된 상황에서도 임금을 생각하는 것이니까요.

④ (다)의 '그'가 작가라면, 이 작품은 '그 집'에서 성장하고 떠났던 자신의 경험을 타인의 것처럼 전달함으로써 개인적인 경험에 거리를 두고 객관화하여 표현한 것이겠군.

→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하여 경험을 전달하니 객관화하여 표현한다고 볼 수 있죠. 당연한 선지입니다.

⑤ (다)의 '우리들'에 작가 자신이 포함되므로, 이 작품은 작가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확장하여 유사한 경험을 가진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려 한 것이겠군.

→ 이것도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자신의 경험을 '나'에게 한정하지 않고 '우리들'로 확장합니다. 그럼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 기〉

‘진작부터 버르던 이야기’는 백 주사가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서술자는 그 ‘이야기’를 서술자의 시선뿐 아니라 여러 인물들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함으로써 독자와 작중 인물 간의 거리를 조절한다. 또한 세부 항목을 하나씩 나열하여 장면의 분위기를 고조하고 정서를 확장하는 서술 방법으로 독자에게 현장감을 전해 준다. 이때 독자는 백 주사와 그의 가족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비판적으로 보게 된다.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진작부터 버르던 이야기’라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져 있는데요! 딱 봐도 저 이야기가 ‘사건’이라는 느낌이 옵니다. ‘진자부터 버르던 이야기’에 관련된 내용을 체크해 줍시다.

그렇게 보니까, ‘백 주사’라는 인물이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뭔가 이 인물이 마냥 착하고 억울한 입장인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줄에 ‘백 주사와 그의 가족’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인물이라고 제시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백 주사’의 성격과 그와 관련된 사건(억울한 일 등)이 제시되겠다는 생각으로 작품 읽어 봅시다.

그리고 작품 제목이 ‘미스터 방’인 만큼, ‘방씨’ 성을 가진 인물이 등장할 수도 있겠네요. 그 인물이 등장한다면, 꼭 주목해줍시다.

〔앞부분의 줄거리〕 해방 직후, 미군 소위의 통역을 맡아 부정 축재를 일삼던 방삼복은 고향에서 온 백 주사를 집으로 초대한다.

“저 주사가 이거 두구 갑니다.”
 들고 올라온 각봉투 한 장을 남편에게 건네어 준다.
 “어디?”
 그러면서 받아 봉을 뜯는다. 소절수 한 장이 나온다. 액면 만 원짜리다.
 미스터 방은 성을 벌떡 내면서
 “겨우 돈 만 원야?”
 하고 소절수를 다다미 바닥에다 뺨 내던진다.
 “내가 알우?”
 “우랄질 자식 어디 보자. 그래 전, 걸 십만 원에 불하 맡아다, 백만 원 하난 냉겨 먹을 테문서, 그래

겨우 돈 만 원야? 엠병혈 자식, 내가 엠피*한테 말 한마디문, 전 어느 지경 같지 모를줄 모르구서.”

“정중으루 가져와요?”

“내 말 한마디에, 죽을 늪이 살아나구, 살 늪이 죽구 허는 줄은 모르구서. 흥, 이 자식 경 좀 쳐 바라……. 증중 따근허게 데와. 날두 산산허구 허니.”

* 엠피(MP) : 미군 헌병.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들이 바로 등장합니다. ‘방삼복’과 ‘백 주사’가 등장해요. ‘백 주사’는 <보기>에서 확인했으니까 바로 눈여겨봐야 하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방삼복’은 왜 그럴까요?

네, 작품 제목 때문입니다. 작품 제목이 미스터 ‘방’이잖아요. 그래서 ‘방씨’ 성을 가진 인물이 등장한다면 눈여겨보기로 했죠? 그리고 보니 ‘방삼복’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중간 즈음 보면 ‘방삼복’을 ‘미스터 방’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무조건 주목하셔야 해요!

앞부분 줄거리를 보니, ‘방삼복’은 미군과 관련된 일을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착한 인물은 아니죠? ‘부정 축재’를 일삼는다고 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인물이에요. 아마 미군에게 빌붙는 앞잡이인가 봅니다.

그렇게 같은 고향 사람인 ‘백 주사’를 만나네요. 일단 아내가 ‘서 주사’라는 인물이 준 봉투를 ‘방삼복’에게 건넵니다. (남편에게 건넨다는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거기엔 ‘만 원 짜리’ 봉투가 들어있네요. 그런데 ‘방삼복’은 화를 냅니다. 자기한테 돈을 ‘만 원’ 밖에 안 주었다면서요. 그러면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미군 헌병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간 미군 앞잡이 같은 느낌이죠? 아마 ‘서 주사’가 돈을 준 건, 방삼복이 나름 힘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인가 봐요. 이해관계에 얽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숨겨진 사건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넘어갑시다!

✓ 장면·사건 요약

- ① 방삼복과 백 주사가 만남
- ② 아내가 방삼복(미스터 방)에게 서 주사가 준 돈 봉투를 건넨
- ③ 방삼복이 봉투의 액수를 확인하고 화를 냄
- ④ 방삼복이 미군 권력에 기댄 인물임을 알 수 있음

✓ 필수적 감상 태도

- ① <보기>에서 제시된 내용을 통해 사건에 대한 정보, 인물(백 주사)에 대한 정보 파악하기
- ② 방삼복에 대한 인물 정보 파악하기
- ③ 숨겨진 사건 파악하기

새로이 안주가 오고, 따끈한 정종으로 술이 몇 잔 더 오락가락 하고 나서였다.
백 주사는 마침내, **진작부터 버르던 이야기**를 꺼내었다.

아주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기>에서 언급된 사건이 등장하고 있어요. 백 주사와 방삼복의 만남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와 관련된 정보에서 ‘백 주사’의 성격을 얘기했죠. 백 주사가 마냥 억울한 일만은 아닐 거다! 왜? 그에게 고통 받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포인트를 기억하면서 읽어 봅시다.

백 주사의 아들 백선봉은, 순사 임명장을 받아 취면서부터 시작하여 8·15 그 전날까지 칠 년 동안, 세 곳 주재소와 두 곳 경찰서를 전근하여 다니면서, 이백 석 추수의 토지와, 만 원짜리 저금통장과, 만 원 어치가 넘는 옷이며 비단과, 역시 만 원어치가 넘는 여편네의 패물과를 장만하였다.

남들은 주린 창자를 즐라멜 때 그의 광에는 옥 같은 정백미가 몇 가마니씩 쌓였고, 반년 일 년을 남들은 구경도못 하는 고기와 생선이 끼니마다 상에 오르 지 않는 날이 없었다.

백 주사의 아들 ‘백선봉’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우선 ‘진작부터 버르던 이야기’는 과거의 일인데, 백 주사네가 친일파 집안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순사 임명장’, ‘8·15 그 전날’이란 표현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렇게 백선봉(백 주사네)은 일제의 앞잡이로 땡땡거리며 살았네요. 다양한 구절들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남들은 주린 창자를 즐라멜 때’ 백선봉(백 주사네)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친일파예요.

xx경찰서의 **경제계 주입**으로 있던 마지막 이 년 동안은 더욱더 호화판이었다. **8·15 그날 밤, 군중이 그의 집을 습격하였을 때** 쏟아져 나온 물건이 쌀 말고도

- 광복 여섯 필
- 고무신 스물세 켤레
- 지카다비 여덟 켤레
- 빨랫비누 세 켤짝
- 양말 오십 타
- 정종 열세 병
- 설탕 한 부대

이렇게 있었다란다. 만 원어치 여편네의 패물과, 만 원어치의 옷감이며 비단과, 만 원짜리 저금통장은 고만두고 말이었다.

물건 하나 없이 죄다 빼앗기고, 집과 세간은 조각도 못 쓰게 산산 다 부수고, 백선봉은 팔이 부러지고, 첩은 머리가 절반이나 뽑히고, 겨우겨우 목숨만 살아, 본집으로 도망해 왔다.

일편 고을에서는, 백 주사가, 자식이 그런 짓을 해서 산토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거만히 굴고, 작인들한테 팔 할 가까운 도지를 받고, 고리대금을 하고 하였대서, 백선봉이 도망해 와 눕는 그날 밤, 그의 본집인 백 주사네 집을 습격 하였다.

집과 세간 죄다 부수고, 백선봉이 보낸 통제 배급 물자 술한 것 죄다 빼앗기고, 가족들은 죽을 매를 맞고, 백선봉은 처가로, 백 주사는 서울로 각기 피신하여 목숨만 우선 보전하였다.

백 주사는 비싼 여관 밥을 사 먹으면서, 울적히 거리를 오락가락, 어떻게 하면 이 분풀이를 할까, 어떻게 하면 빼앗긴 돈과 물건을 도로 다 찾을까 하고 궁리를 하는 것이나, 아무런 표책도 없었다.

역시나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백 주사가 말하는, ‘진작부터 버르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백선봉(백 주사네)은 친일파였습니다. 그래서 광복과 동시에 집안이 다 털린 거예요. 아마 친일파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조선인들을 많이 괴롭혔겠죠? 그러니까 광복하자마자 가장 먼저 사람들이 백 주사네를 공격했을 거예요. 역시나 숨겨진 사건을 잘 파악하면서 읽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재산도 다 뺏기고 목숨만 보전하게 된 일을 겪었습니다.

백 주사의 입장에서선 이게 ‘억울한 일’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몰락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게 진짜 억울하기만 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친일 행위를 하며 다른 사람들을 괴롭혔으니까요. 고리대금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보기>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진작부터 버르던 이야기’가 백 주사의 억울함을 드러내는 듯 하지만, 백 주사네에게 고통 받은 인물의 입장을 보여 준다고 했으니까요!

‘진작부터 버르던 이야기’를 통해 ‘백 주사’의 성격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진짜 억울할 만한 일을 당해서 억울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친일파인 백 주사네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겁니다.

✓ 장면·사건 요약
① 백 주사가 ‘진작부터 버르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함 ② 그 이야기는, 친일파였던 백 주사네가 광복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몰락했다는 내용임

✓ 필수적 감상 태도
① <보기>에서 제시된 내용을 떠올리며 사건의 함의를 이해하기 ② 백 주사와 관련된 인물 정보 구체화하기

그러자 오늘은 우연히 이 미스터 방을 만났다. 종로를 지향 없이 거니는데, 지나가던 자동차가 스프르 멈추면서, 서양 사람과 같이 탔던 신사 양반 하나가 내려서더니, 어찌다 눈이 마주치자

“아, 백 주사 아니신가요?”

하고 반기는 것이였었다.

자세히 보니, 무어 길바닥에서 신기료장수를 한다던 코빼뜰이 삼복이가 분명하였다.

“자네가, 저, 저, 방, 방…….”

“네, 삼복입니다.”

“아, 건데, 자네가…….”

“허, 살 때가 됐답니다.”

그러고는 **내 집으로 잡시다, 하고 잡아끄는 대로 끌리어온 것이였었다.**

헛갈리기 쉬운 대목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사건이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방삼복과 백 주사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이전부터 버르던 이야기’에 대한 백 주사의 생각과 함께 말이죠.

그러니까 앞부분 줄거리에 해당하는 그 장면인 겁니다. 헛갈리시면 안 돼요!

#참고 문장

[앞부분의 줄거리] 해방 직후, 미군 소위의 통역을 맡아 부정 축재를 일삼던 **방삼복**은 고향에서 온 **백 주사**를 집으로 초대한다.

✓ 장면·사건 요약
① 백 주사와 방삼복이 만나는 상황

✓ 필수적 감상 태도
① 사건의 흐름 이해하기

의표하며, 집하며, 식모에 침모에 계집 하인까지 부리면서 사는 것하며, 신수가 흰히 트여 가지고, 말도 제법 의젓하여진 것 같은 것이며, 진소위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 것인지.

옛날의 영화가 꿈이 되고, 일조에 몰락하여 가뜩이나 초상집 개처럼 초라한 자기가, 또 한 번 어깨가 움츠러 들을 느끼지 아니치 못하였다. 그런 데다 이 녀석이, 언제 적 저라고 무엄스럽게 굴어, 심히 불쾌하였고, 그래서 엔간히 자리를 털고 일어설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었었다. 그러나 참았다.

보아하니 큰 세도를 부리는 것이 분명하였다. 잘만 하면 그힘을 빌려,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이 있을 듯 싶었다.

- 채만식, 「미스터 방」 -

백 주사의 심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방삼복이라는 인물, ‘이전부터 버르던 이야기’와 관련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백 주사는 미군 통역 일을 하면서 재산을 쌓고 큰 권력을 누리는 방삼복을 보고 움츠러들며, 방삼복의 거들먹거리는 태도를 보며 불쾌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참아요. 왜? ‘이전부터 버르던 이야기’ 즉, 광복 때 패가망신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백 주사도 방삼복의 힘을 빌려 자신의 재산을 되찾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 장면 · 사건 요약

- ① 방삼복에 대한 백 주사의 심리가 드러남
- ①-1 방삼복의 권위를 통해 빼앗긴 재물을 되찾고자 함
- ①-2 잘나가는 방삼복을 보며 위축되고 잘난 체 하는 듯한 행동을 보며 불쾌감을 느낌

✓ 필수적 감상 태도

- ① 인물의 심리 파악하기

#지문 총평

인물에 대한 정보나 핵심 사건을 이해하는 게 어렵진 않았습니디. 하지만 방삼복과 백 주사가 만나는 장면(뒷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헷갈리기 쉬운 대목입니다. 사건의 순서가 뒤틀리기 때문이예요. 백 주사의 심리에 주목하면서 사건의 순서를 잘 파악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해돼요.

28. 윗글의 대화를 중심으로 '방삼복'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③

- ① 자신이 꾸미고 있는 일에 관심 없는 상대에게 자기 업무를 떠넘기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 방삼복이 꾸미는 일도, 그 일을 떠넘기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틀린 선지입니다.

- ② 질문에 대꾸하지 않음으로써 상대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도록 거드름을 피우고 있다.

→ 이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질문에 대꾸하지 않은 적도, 상대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도록 하지도 않았어요. 초반 부분에서 서 주사가 준 봉투를 아내가 건네는 장면에서도 대답은 잘 합니다. 정중으로 가져 오냐는 말에 정중 따끈하게 데워 오라며 대답하고 있죠.

- ③ 눈앞에 없는 사람을 비난하고 위협함으로써 함께 있는 상대에게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고 있다.

→ 정답입니다. 마찬가지로 앞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서 주사의 봉투를 받으며 겨우 만 원 뿐이라며 서 주사에 대한 위협을 합니다. '내가 옴피한테 말 한마디문, 전 어느 지경까지 모를 줄 모르구서'라는 대목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 주사가 준 돈이 부족하다며 화를 내는 대목에서, 서 주사에게 위협을 하고 있어요. 또 서 주사는 지금 방삼복 눈 앞에 없는 인물입니다.

- ④ 차에서 내려 상대에게 먼저 알은체하며 동승자에게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고 있다.

→ '동승자'는 서양 사람입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에게 인맥을 과시하지는 않죠. 그냥 백 주사에게 먼저 아는 체 할 뿐입니다.

- ⑤ 상대가 이름을 제대로 말하기 전에 말을 가로채 상대에 대한 열등감을 감추고 있다.

→ 말을 가로챈 것은 맞습니다. 백 주사가 '방, 방..'하는데 '삼복입니다' 하고 가로채긴 해요. 그런데 이게 열등감을 감추는 건 아니죠? 오히려 맥락상 방삼복은 미군 앞잡이로 잘 나가고, 백 주사는 친일파 행세를 하다 광복과 동시에 몰락한 인물이니깐요. 또 방삼복의 집에 간 백 주사가 위축된다는 점, 방삼복이 거만하게 행동한다는 점을 통해서도 이 선지가 확실히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2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

㉠ 내가 애플*한테 말 한마디문, 전 어느 지경 같지 모를 줄 모르구서.”

㉡ 백선봉은, 순사 임명장을 받아 취면서부터 시작하여 8·15 그 전날까지 칠 년 동안, 세 곳 주재소와 두 곳 경찰서를 전근하여 다니면서, 이백 석 추수의 토지와, 만 원짜리 저금통장과, 만 원어치가 넘는 옷이며 비단과, 역시 만 원어치가 넘는 여편네의 패물과를 장만하였다.

- ㉠은 방삼복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대목입니다. 네, 미군 앞잡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 백 주사와 관련된 정보입니다. 핵심 사건이기도 했죠. 백 주사는 친일파로, 재산을 축적한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광복과 동시에 몰락했지만요.

㉠ ㉠과 ㉡에는 모두 외세에 기대어 사익을 추구하는 인물의 부정적 모습이 드러난다.

→ 정답입니다. ㉠은 미군 세력에 기대어 권력을 누리는 방삼복의 모습이, ㉡에서는 친일파로 재산을 축적한 백선봉(백 주사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외세에 기대어 재산을 축적하는 게 긍정적이진 않죠? 더군다나 ㉠은 외세에 기대어 얻은 권력을 통해 다른 인물을 위협하는 대목이니 더욱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과 ㉡에는 모두 외세와 이를 돕는 인물 간의 권력 관계가 일시적으로 역전된 모습이 드러난다.

→ 외세와 이를 돕는 인물 간의 권력 관계 역전이라면, ㉠에서는 미군과 방삼복, ㉡에서는 일본과 백선봉(백 주사네)의 관계가 뒤집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예 해당 구절들이 외세와의 우위 관계와 무관하기도 해요.

㉢ ㉠과 ㉡에는 모두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인물이 몰락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 둘 다 몰락 과정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물들의 권력이나 높은 사회적 위치를 보여준다고 보아야겠죠.

㉣ ㉠에는 권력을 향한 인물의 조바심이, ㉡에는 권력에 의한 인물의 좌절감이 드러난다.

→ 둘 다 틀렸습니다. ㉠에서는 조바심은커녕 오히려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있는 모습이 제시됩니다. ㉡에서도 권력으로 재산을 축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좌절감은 아니죠.

㉤ ㉠에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인물의 확신이, ㉡에는 추락한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인물의 자신감이 드러난다.

→ ㉡에 대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추락한 권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재물을 잘 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이걸 권위 추락한 상황으로 이해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떨어진 권위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나가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은 맞다고 할 수 있어요. 자신의 권위에 확신이 있으니까, 헌병에게 말해서 서 주사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자신의 권위를 확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

- ㉠ 어떻게 하면 빼앗긴 돈과 물건을 도로 다 찾을까 하고 궁리를 하는 것이나, 아무런 묘책도 없었다.
- ㉡ 내 집으루 갑시다. 하고 잡아끄는 대로 끌리어온 것이었었다.
- ㉢ 진소위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 것인지.
- ㉣ 또 한 번 어깨가 움츠러들을 느끼지 아니치 못하였다.
- ㉤ 오히려 자리를 털고 일어설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었었다. 그러나 참았다.

① ㉠ : 스스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강조하여 인물의 답답한 처지를 보여 준다.

→ 네, 재산을 빼앗기긴 했는데 백 주사 스스로는 묘책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삼복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기도 하죠.

② ㉡ : 방삼복의 제안에 영겁결에 따라가는 모습을 통해 인물이 얼떨떨한 상태임을 보여 준다.

→ 네, '잡아끄는 대로 끌려온 것'이니까 얼떨떨하겠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③ ㉢ : 신수가 좋고 재력이 대단해 보이는 방삼복의 모습에 고향 사람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 방삼복의 모습이 대단하긴 합니다만, 이게 백 주사가 고향 사람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진 않습니다. 백 주사는 오히려 잘난 듯 행동하는 방삼복의 모습에 불쾌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자신의 재물을 찾는 데 이용하려고 그것을 참을 뿐입니다. 결국은 이해 관계죠. 고향 사람에 대한 자부심은 완전 헛소리입니다.

④ ㉣ : 자신의 처지를 방삼복과 비교하면서 주눅이 들었음을 보여 준다.

→ 방삼복은 잘나가는데 자기는 재산 다 털리고 빈털터리가 됐죠. 그래서 '옛날의 영화가 꿈이 되고 ~ 초라한 자기가' 어깨가 움츠러 든다고 하니, 방삼복과의 비교로 주눅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⑤ ㉤ : 방삼복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그에 대한 반감이 뒤섞여 있음을 보여 준다.

→ 바로 정답입니다. 방삼복이 무엄스럽게 구는 게 불편하지만 참습니다. 방삼복이 잘 나가니까, '큰 세도'를 부리니까 그걸 이용해서 자기 재물을 찾고자 하는 생각 때문이죠. 백 주사가 왜 자리를 일어나려고 했는지, 그리고 왜 참았는지 잘 이해해야 풀 수 있는 선지입니다.

31. <보기>를 참고하여 [A]~[E]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 ㉤

— <보 기> —

'진작부터 버르던 이야기'는 백 주사가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서술자는 그 '이야기'를 서술자의 시선뿐 아니라 여러 인물들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함으로써 독자와 작중 인물 간의 거리를 조절한다. 또한 세부 항목을 하나씩 나열하여 장면의 분위기를 고조하고 정서를 확장하는 서술 방법으로 독자에게 현장감을 전해 준다. 이때 독자는 백 주사와 그의 가족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비판적으로 보게 된다.

① [A] : 백선봉의 풍요로운 생활을 '남들'의 굶주린 생활과 비교하여 서술함으로써 독자가 그를 비판적으로 보게 하고 있군.

→ '남들은 주린 창자를 즐라멜 때' 백선봉은 친일파로서 재산을 축적하고 잘 먹고 잘 삽니다. 독자로 하여금 비판적으로 보도록 만든다고 볼 수 있겠네요. 남들 다 죽어가는데, 자기 혼자 친일파 행세를 하며 잘 먹고 잘 사는 건 당연히 비판적으로 불만하죠?

② [B] : 부정하게 모은 많은 물건들을 하나씩 나열하여 습격 당시 현장의 들뜬 분위기를 환기함으로써 '군중'의 놀람과 분노를 독자에게 전하려 하고 있군.

→ 선지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게 꽤 까다롭습니다. 일단 군중은 광복과 동시에 자기들 힘들 때 친일파 행세를 하며 재산을 모은 백 주사네를 습격합니다. 당연히 들뜬 분위기일 거예요. 광복의 기쁨과 함께 습격했을 테니까요. 동시에 군중은 놀랄 겁니다. 쌀 말고도 수많은 물건들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럼 자연스레 이는 분노로 이어지겠죠. 자기들이 '주린 창자를 즐라멜' 정도로 힘들 때, 친일파인 백 주사네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요.

해설 Comment

직접적인 근거가 없고, 전체적인 작품 내 상황을 통해 판단해야 하는 선지입니다. 작품 자체를 얼마나 잘 감상했는지 묻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객관적인 근거를 잡아서 고난도 문항을 구성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이 선지는 진짜 작품의 감상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연스럽게 '그렇겠지~' 정도로 통 치고 넘어갔거나, '애매한데?'라고 생각했다면 꼭 복습해보시길 바랍니다.

③ [C] : '있었더라'를 통해 누군가에게 들은 것처럼 전하면서도, 전하는 내용을 '군중'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독자가 '군중'의 입장에 서도록 유도하고 있군.

→ 네, [C]는 백 주사네 집을 군중이 습격하여 재산을 털어내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B]에 이어 [C] 또한 백 주사네 재물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장면은 '개네 집을 털었더니 이런 것들이 나왔다더라~, 비단, 통장은 고만두고 말이야'라는 뉘앙스로 서술됩니다. 즉, '개네 집을 털었더니'의 주체인 '군중'의 입장에서 제시하고 있죠. 군중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군중의 입장에서 사건을 보도록 유도합니다.

④ [D] : '동네 사람'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백 주사의 만행을 서술함으로써 백 주사가 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처럼 독자가 느끼게 하고 있군.

→ 마찬가지로입니다. 동네 사람들의 입장에서, 백 주사가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알려줍니다. 고리대금도 하고 거만하게 굴고 했죠? 즉, 사람들을 괴롭힌 백 주사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동네 사람'의 시선으로 초점화하는 겁니다. '~하고 하였대서'라는 부분을 근거로 잡을 수 있어요. 백 주사의 만행을 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제시된 대목입니다.

그래서 '백 주사가 이렇게 괴롭혔으니까 광복하자마자 습격받은 것이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을 했으니 습격을 받았겠지?"와 같은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으니까 백 주사가 빌미를 제공한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⑤ [E] : 백 주사 '가족'의 몰락을 보여 주는 사건들을 백 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화하여 그들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편에 선 독자가 통쾌함을 느끼게 하고 있군.

→ 백 주사의 시선이 아닙니다. 특히 마지막 구절에서는 백 주사가 겪은 일을 제3자의 시선에서 설명합니다. 즉, 서술자의 시선으로 사건을 전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D]와 비교해보면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D]는 '고리대금을 하였대서~'라며 고리대금을 당한 입장에서 장면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백 주사의 악행에 조금 더 공감하고, 백 주사의 습격을 정당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E]에서는 그냥 사건이 전달될 뿐이에요. 우리가 [E]를 읽을 때 백 주사 입장에서 겪을 만한 억울함이나 비참함(?) 등에 주목하며 백 주사의 입장에서 장면에 몰입하지 않습니다. 진짜 "백 주사가 저런 일을 당했구나 ~" 정도에서 그칩니다. 독자와 백 주사의 거리가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백 주사의 입장에서, 백 주사가 서울로 피신한 장면을 읽지 않습니다.

〈보 기〉

(가)와 (나)는 모두 부정적 현실을 비판한 작품이다. (가)는 물질문명의 허위와 병폐에 몰들어 가는 공동체가 농경 문화의 전통에 바탕을 두고 건강한 생명력과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작가 의식을 담고 있다. (나)는 환영(幻影)을 통해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대중을 확일적으로 길들이는 권력의 기만적 통치술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시의 주제에 대한 내용을 제시합니다. 사실상 <보기>만 잘 봐도 시 한편 다 읽는 수준입니다. 두 작품 모두 시적 상황이 부정적 현실이고, 화자는 그것을 비판합니다. (가)의 화자는 농경 문화와 공동체의 생명력, 순수성을 지향하고 (나)의 화자는 획일화하지 않는 상황을 지향하겠죠.

(가) 먼저 봅시다. 제목을 보아도 크게 얻어갈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바로 작품으로 들어갑시다.

(가)

향아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취이던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자**

〈수수럭거리는 수수밭 사이 걸썩스런 웃음들 들려 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 나던 석양……〉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 맨발을 담그고 늘어앉아 빨래들을 두드리던〉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 아주 정직한 작품입니다. 일단 대상은 ‘향아’입니다. ‘향아’에게 옛날로 가자,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보기>의 내용만 보아도, 이게 농경 문화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 공동체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화자의 지향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보기>가 없더라도, 괄호 안의 구절을 통해 이것이 전통 사회의 모습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수밭, ‘호미와 바구니’를 든 사람들, ‘냇물가 ~ 빨래를 두드리던’ 등과 같은 표현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적 상황을 떠올리기는 전혀 어렵지 않죠? 화자는 전통적 공동체 사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상황입니

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모습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필수적 감상 태도

- ① 화자의 지향점 체크하기
- ② 시적 대상 파악하기

눈동자를 보아라 **향아** 회올리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에 넋 빼앗기지 말고

철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미끈당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배기기 전으로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은 젊음으로 찾아 가자구나

→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보기>에서 언급한 주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도 ‘향아’라는 대상이 등장하고, 화자는 그 대상에게 ‘허울의 눈부심’에 넋을 빼앗기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울은 당연히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이겠죠? <보기>의 내용을 떠올리면, 물질문명의 ‘허위’에 해당하겠습니까.

→ 마찬가지로 화자의 지향점이 등장합니다. 화자는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 마을은 ‘철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곳입니다. 즉,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한 전통적 공동체입니다. 화자가 지향을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화자는 전통적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도시 문명을 지양하고요.

→ 같은 맥락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미끈당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은 도시 문명의 병폐를 가리키는 표현이겠죠? 그리고 화자는 이러한 병폐가 생기기 전의 ‘우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병들지 않은 젊음’을 찾아서요. 네, 전통적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결국 ‘향’을 부르며 화자의 지향점을 드러내는 것은, 도시화되기 이전의 고향, 공동체의 모습을 되찾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고향의 모습은 ‘정자나무 마을’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부터 제시된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의 모습들도 역시나 같은 맥락이겠죠

✓ 필수적 감상 태도

- ① 화자의 지향점 파악하기
- ② 화자의 지양 대상 파악하기
- ③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발
돋움의 흥넠랑 그만 내자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멘발을 벗
고 콩바싹 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로 가자 달이 뜨는
명절밤 비단치마를 나부끼며 떼지어 출추던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넷물 굽이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

→ 같은 맥락의 시상 전개입니다. 대상을 부르며 화자의 지향점을 드러냅니다.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돋움의 흥내’는 화자가 지양하는 것입니다. 그런 흥내를 그만 내자고 하니까요. 동시에 화자는 ‘미개지’, ‘전설 같은 풍속’, ‘마음밭’을 지향합니다. 그런데 각 대상과 관련된 구절을 읽으면 모두 전통적 공동체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나 도시문명을 거부하고 전통적 공동체의 생명력과 순수성을 지향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 신동엽, 「향아」 -

✓ 필수적 감상 태도

- ① 화자의 지향점 파악하기
- ② 화자의 지양 대상 파악하기
- ③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지문 총평

<보기>가 없더라도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하는 작품입니다. 화자의 지향점과 지양점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보기>를 읽으면 더 구체적이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긴 하지만요.

이번엔 (나)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에 대한 정보 기억나시죠? 환영을 통해 대중을 확립적으로 길들이는 권력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된 상황이 제시될 거예요. 작품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없으니 작품으로 갑시다.

(나)

이사온 그는 이상한 사람이었다

그의 집 담장들은 모두 빛나는 유리들로 세워졌다

골목에서 놀고 있는 부주의한 아이들이

잠깐의 실수 때문에

풍성한 햇빛을 복사해 내는

그 유리 담장을 박살내곤 했다

그러나 애들아, 상관없다

우리는 또 갈아 끼우면 되지

마음껏 이 골목에서 놀렴

→ 시적 상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특별한 점은 못 잡겠어요. 이사온 사람과 아이들이 등장하는데, 이사온 사람은 아이들이 유리를 부서도 괜찮다고 합니다. 인자한 사람이네요..? 일단은 계속 읽어 봅시다.

✓ 필수적 감상 태도

-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유리를 깬 아이는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이상한 표정을 짓던 다른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곧 즐거워했다

견고한 송판으로 담을 쌓으면 어떨까

주장하는 아이는, 그 아름다운

골목에서 즉시 추방되었다

→ 여기서부터 슬슬 내용에 대한 감을 잡으셔야 합니다. 아이들은 유리가 있는 골목에 적응하며 잘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유리를 자꾸 부수는 상황에서 ‘견고한 송판’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추방되고 있어요. 이상하죠?

→ <보기>의 내용을 떠올리면 확립화되는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리를 깬 아이들, 이상한 표정을 짓던 아이들은 모두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송

판을 제기하는 아이는 조금 다르죠? 유리에 적응하지 않는 아이가 있고, 그 아이는 즉시 추방되고 있습니다. 네, 획일화되는 상황입니다.

✓ 필수적 감상 태도

- ① 시적 상황 구체화하기
- ②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 이해하기

유리 담장은 매일같이 깨어졌다
필요한 시일이 지난 후, 동네의 모든 아이들이
충실한 그의 부하가 되었다

어느 날 그가 유리 담장을 떼어냈을 때, 그 골목은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임이
판명되었다. 일렬로 선 아이들은
묵묵히 벽돌을 날랐다

→ 앞에서 <보기>의 내용을 떠올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 두 연에서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유리가 있는 골목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은 ‘그의 부하’가 되었고, 유리를 떼어내자 그 골목은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유리는 어땠나요? ‘풍성한 햇빛을 복사해내는’ 대상이었습니다. 네, 환영입니다.

→ 그렇게 유리(환영)를 거두고 난 뒤에는 ‘일렬로 선 아이들’이 묵묵히 벽돌을 나릅니다. 아이들이 ‘일렬로’ 획일화되었고, ‘그의 부하’가 되어 있습니다. 환영에 길들여졌네요, 결국 ‘이사온 그’는 권력, ‘아이들’은 대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기형도, 「전문가」 -

✓ 필수적 감상 태도

- ① 시적 상황 구체화하기
- ②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 이해하기

#지문 총평

역시나 작품을 이해하는게 어렵진 않습니다. 정말 앞부분에서 작품 내용에 대한 감을 못 잡는다 하더라도, <보기>와 마지막 두 연만 잘 읽어도 충분합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4연에서부터 시적 상황이 이상함을 눈치채고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정말 작품을 능동적으로 잘 읽은 것이니까요.

32.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②

① (가)는 과거를 회상하며 현실을 관망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현실을 ‘관망’하지 않습니다. 관망하는 태도는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쉽게 빗대어 설명하자면 강 건너 불구경하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가)의 화자는 지향점과 지양점이 뚜렷합니다. 현재 상황을 지양하고 옛 공동체의 모습을 지향합니다. 현실을 관망한다고 보긴 어렵죠.

② (나)는 상징성을 띤 사건의 전개를 통해 주제를 암시하고 있다.

→ 유리, 아이들, 이사온 사람의 이야기에 빗대어 주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기> 보고, 작품 잘 이해했으면 바로 고를 수 있는 정답입니다.

③ (가)와 (나)는 모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상상 세계의 경이로움을 나타내고 있다.

→ (가)와 달리 (나)에서는 음성 상징어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두 작품 모두 경이로움도 딱히 드러나지 않고요.

④ (가)와 (나)는 모두 동일한 시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 (가)는 동일한 시구의 반복과 변주가 드러납니다. ‘돌아가자’가 반복·변주됩니다. 그런데 (나)에서는 반복이나 변주가 딱히 드러나지 않네요.

⑤ (가)는 위로하는 어조로, (나)는 충고하는 어조로 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 (가)에서 위로하는 어조, (나)에서 충고하는 어조 둘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는 '향아'라는 청자를 부르며 '~가자'라며 화자의 의지를 드러냅니다. 위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나)에서는 '애들아'라는 대상을 부르며 유리를 깨도 괜찮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충고와는 무관하죠.

33.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④

㉠ 정자나무 마을, ㉡ 그 골목

① ㉠은 '향'에게 귀환이 금지된 공간이고, ㉡은 '아이들'에게 이탈이 금지된 공간이다.

→ ㉠은 화자가 '향'을 부르며 '귀향'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귀향이 금지되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반면 ㉡은 아이들이 길들여진 공간으로, 아이들은 '그'의 부하가 된 상태입니다. 즉, ㉡에서 아이들은 '그'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탈이 금지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② ㉠은 '향'이 자기반성을 수행하는 공간이고, ㉡은 '아이들'이 '그'의 요청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 ㉠과 관련하여 향이 자기반성을 하는 내용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대놓고 틀렸네요. ㉡에서는 아이들이 '그'의 부하가 되어 벽돌을 옮기니, 맞는 해석이네요.

③ ㉠은 '향'이 본성을 찾아가는 낯선 공간이고, ㉡은 '아이들'이 개성을 박탈당한 상실의 공간이다.

→ ㉠이 '낯선 공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던' ㉠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니, 과거의 모습을 되찾고자 하는 거예요. <보기>를 참고하고 작품을 읽었다면 더욱 쉽게 판단할 수 있겠죠? 전통적 공동체의 모습을 지향하는 맥락이니까 낯선 공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은 개성을 박탈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렬로' 서서 벽돌을 나를 뿐이니까요. 작품 해설에서도 획일화를 언급했어요.

④ ㉠은 '향'의 노동과 놀이가 공존하던 공간이고, ㉡은 '아이들'의 놀이가 사라지고 노동만 남은 공간이다.

→ ㉠은 화자가 지향하는 과거 고향의 공간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호미와 바구니'를 들고 있는 모습, 냇물가에서 '빨래들을 두드리던' 모습, '철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모습이 공존합니다. 노동과 놀이가 공존하던 공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놀지 못하고 '그'에게 길들여져 벽돌을 나를 뿐입니다. 정답이네요.

⑤ ㉠은 '향'과 화자의 우호적 관계가 드러나는 공간이고, ㉡은 '아이들'과 '그'의 상생 관계가 드러나는 공간이다.

→ ㉡이 틀렸습니다. '그'와 아이들의 상생 관계가 아니라, 아이들이 '그'에게 길들여진 상황입니다. ㉠에 대한 설명은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자는 '향'을 부르며 ㉠으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우호 관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 ①

— <보 기> —

(가)와 (나)는 모두 부정적 현실을 비판한 작품이다. (가)는 물질문명의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 가는 공동체가 농경 문화의 전통에 바탕을 두고 건강한 생명력과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작가 의식을 담고 있다. (나)는 환영(幻影)을 통해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대중을 획일적으로 길들이는 권력의 기만적 통치술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① (가)에서 '차라리 그 미개지에도 가자'라는 화자의 권유는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하여 순수성을 지켜 나가려는 의식을 보여 주는군.

→ 너무나 당연한 선지입니다. 미개지에도 가자는 것은 화자의 지향점을 드러내는 구절이고, <보기>에서는 (가)의 화자가 공동체의 생명력과 순수성을 지향한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라고 생각한다면 틀리게 됩니다. 미개지에도 가자는 것은 곧 옛 공동체의 모습을 지향하는 태도입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즉,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하여 순수성을 지키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작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물론 선지 또한 정확히 읽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② (나)에서 골목이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으로 판명되었다는 것은 '유리 담장이 대중을 기만하는 환영의 장치였음을 보여 주는군.

→ 작품 해설에서도 언급한 내용입니다. 햇빛을 복사하던 유리 담장이 있던 골목이, 알고 보니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이었습니다. 즉, 유리 담장은 환영의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③ (가)에서 '기생충의 생리'는 자족적인 농경 문화 전통에 반하는 문명의 병폐를, (나)에서 '주장하는 아이'의 추방은 획일적으로 통제된 사회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역시나 너무나 당연한 선지입니다... '기생충의 생리'는 화자가 지양하는 것입니다. <보기>를 참고하면 문명의 병폐로 볼 수 있겠죠. (나)도 마찬가지로요. 혼자 대안을 주장하던 아이가 추방되는 것은 획일화로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작품 해설에서 언급한 내용이었죠?

④ (가)에서 '발돋움의 흥내'를 낸다는 것은 물질문명에 물들어 가는 상황을, (나)에서 '곧 즐거워했다'는 것은 권력의 술수에 대중이 길들여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 주는군.

→ (가)에 대한 해석은 작품 해설에서 그대로 언급한 포인트입니다. '발돋움의 흥내'는 화자가 지양하는 것이고, 이를 <보기>와 함께 생각한다면 문명에 물드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나)에서는 '그'의 유리 골목에 익숙해지는 상황입니다. 즉, 권력(그)의 술수에 대중(아이들)이 길들여지는 것이라 볼 수 있겠네요.

⑤ (가)에서 '떼지어 춤추던' 모습은 농경 문화 공동체의 건강한 생명력을, (나)에서 '일렬로', '묵묵히' 벽돌을 나르는 모습은 권력에 종속된 대중의 형상을 보여 주는군.

→ 네 '떼지어 춤추던' 모습은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입니다. <보기>를 참고하면 충분히 생명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상의 모습도 생동감이 있으니까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기>를 같이 생각하면 아이들이 '일렬로' '묵묵히' 벽돌을 옮기는 것은 권력에 길들여진 대중의 모습으로 해석됩니다.